



최 호 진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 The policy for dementia care hospitals and the role of neurologist in this system

Hojin Choi,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Guri, Korea

Dementia is one of the biggest global public health challenges facing our generation today. By 2030, Korea is projected to have the highest life expectancy in the world. The government's new plans regarding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ementia care are well-timed strategies for patients and family members suffering from dementia and should be welcomed. The newly designed national dementia strategy of Korea may set 45 public dementia care hospitals. In addition, these care plans also included detailed protocol for facilities and member. However, these plans should be modified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following aspects: definite target, detailed program and instantaneous implementation without a period of trial-and-error learning. Modifying the current plans for the Korean national dementia strategy using stepwise, well-integrated, and systematic approaches will lead to successful dementia care hospital policy.

**Key Words:** Dementia, Care, Policy

### 서 론

새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보건 복지 분야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면서 사회적으로 치매 문제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 평균 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이는 고령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7년 2월 발행된 Lancet 논문에 의하면 2030년에 태어나는 이들을 기준으로 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세계 최초로 90세를 넘어서는 90.8세, 남자도 84.1세로 되어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일본을 넘어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될 전망이다.<sup>1</sup> 또한 올해 2017년은 우리 사회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4%를 넘어선 고령사회의 원년이 되

는 해이기도 하다.<sup>2</sup>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점차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정책 과제 중에서 치매 안심병원 관련 내용을 살펴 보고 향후 필요한 치매 안심 병원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신경과 의사의 역할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 본 론

#### 1. 치매안심병원 설치 및 운영

치매안심병원과 관련된 정책 발표 내용의 가장 큰 부분은 치매안심병동의 확충이다. 현 문재인대통령의 지난 대선기간의 공약 사항은 전국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치매 환자를 전문으로 보는 거점 병원을 전국에 56곳 설립하는 것이었지만 예산과 지역 의료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의 79개의 국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을 설치하는 것으

Hojin Choi,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153 Gyeongchun-ro, Guri 11923, Korea

Tel: +82-31-560-2260 Fax: +82-31-560-2267

E-mail: chj@hanyang.ac.kr

로 변경되었다. 현재 79개 국공립요양병원 중에서 34개병원만이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올해 안에 추정 예산으로 나머지 45개 병원에 56병상을 기준으로 치매안심병동을 확충할 예정이다. 치매안심병동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치매환자에게 나타나는 신경행동증상(Neurobehavioral symptoms of dementia)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병동이다. 요양병원에 설치되지만 장기적인 요양 치료보다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집중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원 대상은 신경행동증상 동반 치매 환자로 전문적 약물 및 비약물적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섬망이 동반된 치매 환자이다. 운영을 위한 인력 기준을 살펴 보면 폭력성 등 문제 신경행동증상에 응급 대응이 가능하고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과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치매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등을 채용하고 환자 당 일정 비율 이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요양보호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치매환자에게 신경과 혹은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제공하고 치매 진단 및 정밀 검사 외에 인지기능, 신경행동증상, 신경징후,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 아래에 전문적 약물, 비약물적 치료를 진행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인지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퇴원 후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치매 시설 기준을 살펴 보면 치매 환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 환자만을 위한 병동이 되고 치매 환자의 신경행동 증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20~30병상 이상의 격리병동을 설치 하도록 하였다. 신체적 상태에 대한 급성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일반 병실도 갖추어 대부분의 치매 환자가 치매안심병동에 거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 1인 이상이 주축이 되어 병동이 운영되도록 하였고 치매 환자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실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실을 구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2. 치매안심병원의 향후 정책 진행 방향에 대한 제언

치매 안심병원의 개념이 나온 이유는 그 동안 치매 환자가 요양 병원에서 기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필요한 시설과 인력이 많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수가 보전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를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세부 사항을 살펴 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치매 안심 병동에서 치매 환자의 관리가 가능한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동안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입원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입원하더라도 치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의료진이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관리에 필요한 인력인 전문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및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한 점도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인력 배치 기준은 마련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력에 대한 유인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의 병원의 경우 인력 수급이 어렵지 않지만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국공립요양병원의 경우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추가 예산 마련에 대한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입원 기준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치매 환자의 신경 행동 증상이나 섬망 증상은 환자의 가족들과 보호자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치매 환자의 의학적 문제의 일부분일 뿐이다. 치매 환자의 경우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낙상 등으로 외상도 자주 일어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 악화로 인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원 기준을 치매 환자의 신경 행동증상으로 한정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매 안심병동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치매 환자를 위한 인력과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필요한 목표와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전무한 실정이다. 치매 환자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치매안심병원에서 이루고자 하는 의학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목표 아래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치매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목표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다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서 치매안심 병동 설치를 서두르면서 일의 순서가 뒤바뀐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치매안심병원 운영에 있어서 신경과 의사의 역할

치매 환자의 경우 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증상과 거동이 불편에 따른 합병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적인 처치뿐만 아니라 간호 부분이나 인지중재 부분의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진료실 환경에 익숙한 의사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토콜 마련과 보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서 마련된 시설 기준이나 병원 운영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각 병원의 환경 변화와 현실적인 한계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을 적절하게 파악해서 꾸준히 피드백을 진행하는 것 또한 치매 전문가인 신경과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신경과 전문의 개개인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므로 관련 학회에서도 충분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번 치매국가책임제하에서 함께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치매 환자 관리와 관

련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서 치매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다만 정책 시행이 충분한 논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매 분야에서 전문가인 신경과 의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면 치매안심병원이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안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문제가 이번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라며 그 중심에 우리 신경과 의사들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References

1. Kontis V, Bennett JE, Mathers CD, Li G, Foreman K, Ezzati M. Future life expectancy in 35 industrialised countries: projections with a Bayesian model ensemble. *Lancet* 2017; 389:1323- 1335.
2. Statistics Korea. Current Korean population and prospective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5 [cited 2017 Jul 30].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6/index.board](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6/index.board).